

우리나라 기생충 집단관리 사업의 현황 및 전망

②

기생충성 질환은 세계적차원으로 볼 때 특히 미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소외되어온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Warren et Purcell, 1981)

높은 감염율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성 질환이 소외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이 질환이 관심을 잃기 쉬운 만성병의 하나이며 그 위해가 빨리 그리고 뚜렷이 인식되지 않고 부지불식 간에 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생

충은 오랜 기간동안 영양물질을 탈취하여 영양 및 발육장애, 빈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수한 종류의 기생충감염 또는 중감염등의 경우에는 극심한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회충의 중감염예에서는 장폐쇄등 기계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조직을 관통하고 각종 장기(臟器)를 파괴하거나 독성물질 분비로 독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徐, 1978), 또 간흡충의 경우



에는 심하면 간암(肝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기생충이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병원체임이 틀림없다. 다만 이런 심한 증상은 많은 감염자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위생상태도 나쁜 일부 중감염자에서 잘 발생하며 또 문제가 되므로 일반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기생충질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사업은 결코 이런 소수의 중감염자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들을 주대상자로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Andrews (1942 a & b)는 구충관리가 단순히 구충감염(hookworm infection)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것 보다는 비교적 소수에서 일어날 심한 빈혈을 동반한 소위 구충증(hookworm disease)의 예방과 치

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겠다.

회충, 편충, 구충등 토양매개성윤충(soil-transmitted helminth)은 여러 기생충중에서도 특히 전세계에 걸친 넓은 분포와 개발도상국 주민의 높은 유행도(감염율 및 감염량) 때문에 공중보건상 중요한 기생충으로 취급되어 왔다. (WHO; 1964, 1967 & 1981), 우리나라에서도 토양매개성윤충은 전국적인 넓은 분포와 높은 감염율 때문에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국민보건 문제중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

우리나라 주민의 토양매개성윤충 감염율에 대한 최초 조사는 대략 1910년대 부터 행해졌던 것 같다. 1913년 Stryker (1914)가 일부 황해도 주민에 대한 대변검사에서 회충, 편충 및 구충 감염율을 대략 60~80% 정도로 보고하였고 그 후 일제하(1910~1945)에서 많은 비슷한 조사보고가 주로 일



본인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감염율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해방후 Hunter, et al.(1949)이 남한각지로부터 표본추출한 919명의 총란양성율을 회충 82.8%, 편충 81.8% 및 구충 46.5%로 보고할 때까지 거의의 평행상태를 유지해 온 실정이었다.

토양매개성운충 감염율의 뚜렷한 감소가 확인되는 것은 거의 1960년대 이후 부터라고 생각된다. 1946년에는 기생충박멸을 목표로 하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Korea Association for Parasite Eradication, KAPE) (이하기협)가 당시 정부의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설립되고 1966년에는 기생충질환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197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토양매개성운충의 감염율 저하에 주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설립 당시 기협은 일차적 중점관리 대상 기생충으로 특히 소아군(小兒群)에서 피해가 크고 감염율도 높은 회충을 선정하였다. 회충관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주로 초, 중, 고 학생집단에 대하여 연 2회의 집단검사 및 집단 투약을 시행하는 한편,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통하여 연 2회 구충제 복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및 위생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최근 회충의 총란양성율이

학생 약 10%내외, 일반주민 약 13% (기협, 1981;보건사회부및 기협,1981) 까지 감소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 상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 높으며 더구나 "회충 0%"의 목표에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회충관리사업은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염율이 감소한 현 시점에서 연 2회의 검사 및 투약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즉, 비용일효율성(cost-efficiency)의 관점으로 볼때 연 2회의 방법을 연 1회로 감소시키면 회충관리의 전망은 어떠하며, 또 검사 및 투약을 중단한다면 회충감염은 어떤 역학적 경로를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까지 시행해온 기생충관리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작성하였다. <계속>

(대한기생충학회 제공)

생활과학 •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가스제조시 냄새나는 약품을 넣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가 나며 즉시 밸브를 잠그고 점검하여 새는 곳을 찾아야 한다.

-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깔리기 때문에 통풍구를 낮은곳에 설치한다.

- 가스기구 가까이에 타기쉬운 물질(인화물)을 두지 않는다.

- 사용하고 난 후는 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 가스가 새기쉬운 연결 부분에는 가끔 비누물을 묻혀보아 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도시가스 사용지혜

- 조리시 가스의 올바른 불꽃은 불꽃의 색깔이 안쪽은 푸른색 바깥쪽은 연한 자색이고 폭은 넓고 길이는 짧으며 안정된 상태로 힘있게 연소하게 된다.

- 점화는 남비를 올린뒤에 하고 소화는 내리기 전에 한다.

- 화력의 조절은 남비 크기에 맞게한다.

- 남비의 밑부분은 평면으로 된것이 좋다.

- 버니의 불구멍이 막히면 열 효율이 떨어져 손해가 되므로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